

전 미정 순회사 하나님의 계시말씀 -수준을 높여라

(2009년 8월 17일 오전 새벽기도회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부분 이었는데 이 날은 새벽기도 때 자꾸 음성이 들려서 어느 분이 주신 말씀인가 싶어서 받아 적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이였습니다. 이 글은 철학적이고 예수님의 신성적인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당히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한 내용 이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사고로 진정 우리의 구원주로 인식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거 해 주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내용에 따라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온전한 신부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준을 높여라.

너의 섭리는 나의 섭리다. 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믿어라. 믿어라. 모든 근본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느니라.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너희들은 아직 모르는 구나.

육의 눈으로 보니 네 앞에 보는 너의 선생만 보이는 것이다. 너의 선생은 그동안 잘 하였다. 그 수고를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도 내 아들 예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어느 누구도 온전히 깨달은 자 없도다. 진정 무지자요, 소경들이다. 어찌 너의 선생만을 바라보고 나의 아들 예수를 평가하느냐.

나의 아들이도다. 나의 아들이도다. 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너의 창조주, 바로 나의 아들이 너희의 신랑인 예수로다.

그 신성적 존재를 감히 너희 선생과 비교하여 그 차원이 얼마나 크고 큰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영의 마음보가 열리지 않아 나의 아들 예수의 그 능력과 존귀함을 한낱 인간의 모습에서 비교하고 평가하려고 하니 어리석고 어리석구나. 정말 너희들은 아직도 그 깨달음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동안 너의 선생을 통해 내 아들의 애기를 많이도 들었다. 참으로 그 말이 맞고 맞도다. 그러나 하나 잊은 것이 있도다. 너의 선생은 나의 피조물이 아니냐. 내가 너의 선생을 창조한 것이 아니냐. 그 만든 대상이 만든 그 주체를 어느 정도는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피조물 너의 선생이 나의 아들, 절대자의 아들, 내 아들 예수의 그 영원한 신성과 그 본질의 차이를 따라올 수 있다고 감히 너희는 생각들을 하느냐.

아서라. 그런 생각들은 너희들을 여전히 무지자와 소경으로 인도하는 사고들이로다. 전능자의 아들, 나의 아들 예수를~ 나의 능력을 대신 전하는 자, 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자, 내 뜻을 자신의 의지로 삼아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자. 그런 그의 능력과 그 사랑의 스케일을 전혀 모르는 채 그저 너희 선생의 그릇 안에 내 아들을 담아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들하고 있어. 누가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지도 모르는 너희들, 겉과 속의 차이를 그리도 모르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그리도 모르느냐.

참으로 낮아진 자의 형상을 입고 너희들 가운데 나타났지만 여전히 내 아들 예수는 신의 아들이요. 나 창조주 여호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성적인 존재로다. 본질을 몰라도 너희들은 너무 몰라. 너의 선생을 통해 펼쳐온 역사 그 몇 십 년을 가지고 이 우주탄생 시점부터 지금껏 너희들을 위해 애가타서 뛰어 다닌 나와 내 아들의 속마음을 몰라도 참으로 너무 몰라. 생각이 있는 자들이면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아라.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 예수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한다. 진정 자복하여라. 진정 회개하여라. 그 많은 말들도 너희들에게 계시하고 권유하였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통해 너희들의 수준 맞추느라 나도 이제껏 힘들었다. 너희들을 나의 아들 예수가 너무 사랑하므로 나 역시 너희들을 어르고 이끌고 지금 나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나의 창조의 근본 뜻을 이루고자 너희들의 어린 철없는 무지함을 참고 또 참는다.

그러니 이제는 그 근본을 잘 생각해보아라. 창조주가 피조물 너희와 얼마나 다르고 다른 존재인지 나의 만든바 된 너희들이 그 머리로 한번 깊이 생각하여라. 나의 아들 예수의 신성의 힘이 너희 선생이 이제껏 보여준 사랑과 능력과 감히 견줄만한 경지라고 비교하고 저울질 하지 마라.

아서라. 너희 철없는 무지자들, 지금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너희를 다독이고 품어줄때 어서 깨닫고 깨달을 지어다. 어서 근본으로 돌이킬 지어다. 무엇을 돌이키라는지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없구나. 너의 선생의 사명을 부인하고 내 아들 예수를 그저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수준과 스케일과 그 규모를 제대로 바라보고 한번 그 심정 맞춰보라는 것이다. 너희 쫓짝 거리는 인생들 한번 나의 신성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비록 육신은 지구 안에 살지만 너의 생각으로 지구를 내려다보고 살아보아라. 이 우주 안에 한 점 먼지보다 작고 나약한 너의 육의 몸이지만 그 생각으로 한번 우주를 품어보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조금은 알 것이다. 이 우주를 정원 삼고 너희들을 지키며 보듬고 사랑하여 그 긴 세월 살아온 내 심정, 내 아들 그 쓸쓸한 심정, 그 외로운 심정, 그 누가 그

차원의 스케일로 그 마음 위로할 것이냐. 네 마음의 사고를 더욱 확장하자. 네 마음의 그 수준을 이제는 높여보자. 개미를 쳐다보고 나를 한번 쳐다보아라. 개미는 영원히 개미로 살다가 인간들의 마음보 그 한조각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너희 인간들도 그 육의 몸을 가지고는 개미보다 참으로 나은 것이 무엇이나. 영원히 그 몸 가지고는 나를 알 수 없을 것이야.

네 영의 마음, 네 사고, 네 생각과 정신을 우주적인 마음보로 확장시키고 한번 창조주 나의 마음을 느껴보아라. 내 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능력자인지 느껴보아라.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여라. 네 육의 그 몸뚱이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의 신성의 힘을 감히 비교하지 마라.

감히 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너희들, 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너희들, 진정 나를 위대하게 바라보아야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선생과 더는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그 본질이 다른 것을 깨달아라. 너희는 모두 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상들이로다. 내가 아니고는 내 아들이 아니고는 네 생명 그 영원한 삶이 감히 가능할 것이라 여기느냐. 너의 그 호흡이 한순간이라도 갈 것 같으냐. 그러니 감히 인간인 너희들 나를 철없는 어린아이 무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네 생명의 근원자로 나를 바라보고 네 영의 영원한 아버지로 나를 생각하고 내 아들 진정한 너의 신량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사고를 전환하여라. 본질을 들여다 보는 사고들을 하여라.

너희 선생을 사랑하느냐. 너희 선생의 그 능력을 보았느냐. 그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다고 보느냐.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선생을 쓰고 역사한 것을 믿어라. 신성적인 그 존재, 사랑을 이제는 너희 선생의 그릇 안에 담아두지 말아라. 근본자를 바라보아라. 근원자를 바라보아라. 창조자를 바라보아라. 나를 진정 깨닫고 나의 아들 앞에 단장을 하여라. 네 신부단장 그 신량을 온전히 깨닫지 않고 맞으려 하였느냐. 그 심정을 모르고 그저 남들 하니 덩달아서 맞으려 하였더냐. 온전히 깨달아라. 온전히 거듭나라. 그리하여 온전히 맞아라. 온전히 너의 신량을 맞아라. 제대로 알고 맞아야 성공한다.

네 수준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수준들을 높여라. 그 생각들을 확장시켜라. 내 입장에서 너의 삶들을 들여다보아라. 그럼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그 인생 그 같은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네 생명이 좌우되는데 참된 사고들을 하자. 정확하고 온전한 정신들을 가지자. 육의 사고를 벗어나 영적 사고를 가져보자. 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맞이하여라. 네 수준을 높여라. 그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참으로 열심히들 사모해야 제대로 만날 것이다. 참으로 깊이 제대로 깨달아야 그 사랑의 차원이 높아질 것이다. 그를 제대로

안다면 그 마음이 들썩 거리고 그 마음이 불타고 그 육신의 모든 욕심들이 한순간 사라질 것이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간구할 것이야. 네 인생 마지막 남은 그 열정을 모두 태우고도 또 태울 만큼 그 사랑이 뜨거워 질 것이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그 설렘을 느낄 것이다. 옆의 누구를 쳐다볼 틈도 없다. 너의 선생 그 온전한 신부의 단장을 오직 쳐다보아라. 그리고 그를 따라 나의 마지막 때를 목숨 걸고 준비하여라. 네 생명을 걸고 한번 하여보아라. 그리하여 참 신랑인 내 아들 예수와 함께 그 영원한 희락을 한번 누려보고 사는 자 되어라. 그 수준대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니 수준을 높여라. 진정 너의 수준을 내 아들의 수준으로 최대한 높이고서 맞이하여라. 노력하여라.

생각을 넓혀 보아라. 그리하면 그 수준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어린이와 같은 너희들, 장성한 자가 되어 나의 역사를 맞이해야지. 너희들만큼은 그리하여라. 내가 키운 너희들이라도 그 수준을 높여 이 시대에 맞는 여인들이 되어라. 이 시대에 맞는 신부들이 되어라. 오늘의 나의 말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자꾸 읽고 또 읽어서 깨달을 때까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라. 그러고 나면 눈이 밝아 질 것이다.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 차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조금씩은 느껴질 것이다. 수준을 높이자. 수준을 높이자. 너희들 수준을 이제는 높이자. 자 나랑 약속들을 하여라. 네 육의 사고들을 벗어버리고 영의 깊은 사고를 하겠다고 굳은 약속들을 하여보자. 그리하여 너의 신랑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주는 신부들이 되어라. 그리하여야 이 역사 성공한다. 온전히 이루어라. 이 역사 신부의 역사 온전히 준비하고 온전히 이루어라.